‘바이오·의료 분야 세계 석학’ 포항 집결···국제 컨퍼런스 성료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입력 2024.06.03 11:06 수정 2024.06.03 11:06

의학-공학 융합, 기술 혁신… 포항을 미래 바이오헬스산업 메카로

포항시와 포스텍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포스코 국제관에서 바이오·의료 분야 최신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바이오 의료 분야 최신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포항시.

전 세계 20명의 세계적 석학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소재를 이용한 나노 의약과 바이오프린팅 응용 기술 개발과 질병 치료·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제약, 진단 센서 등

폭넓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요소기술인 생체재료 분야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조망을 다뤘다.

기조 강연에서는 미국 과학한림원·공학한림원 위원인 하버드대학의 데이비드 웨이츠(David Weitz) 교수가 미세유체 디바이스를 이용한 초고감도 진단기술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 과학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몰리 스티븐스(Molly Stevens) 교수가 바이오소재 디자인과 중개연구를 통한 헬스케어 응용에 대해 공유했으며, 생체재료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바이오머티리얼즈의 주 에디터인 컬럼비아대학 캄 레옹(Kam Leong) 교수는 항염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혁신 바이오소재 개발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하버드의대, 스탠포드대, 존스홉킨스대,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카네기멜론대학 등의 세계적 석학들과 재료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어드밴스트 저널과 영국 왕립화학회 저널 에디터들도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세광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생체재료 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12차 세계 생체재료학회에서 펠로우로 선정돼 세계대회에서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올해는 특히 포항국제불빛축제 일정에 맞춰 진행돼 포스텍 국제 컨퍼런스로 학회에 참석한 해외 초청 연사들이 포항의 주요 R&D 기관과 관광지, 국제불꽃쇼를 관람하며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바이오헬스 산업으로서의 핵심 거점으로 충분한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공감했다.

이강덕 시장은 “의과학과 공학의 융합을 통한 기술 혁신을 이루는 것만이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길”이라며 “공학을 생명의료 과학에 적용한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인 이번 컨퍼런스가 바이오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획기적 아이디어 모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